

달빛

각본/연출 최범호

촬영 감독: 박서영
사운드 감독: 이정연

S#1.동우의 원룸 (실내/밤)

어두운 방안, 모니터의 불빛만이 방안을 비추고 있다.
책장에 많은 소설 책들과, 소설관련 작업서 들이 보인다.

꽤 죄죄 한 몰골을 한 동우가 모니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다.
동우의 시선이 모니터의 '소셜 달빛 원고' 파일에 잠시 멈춘다.
마우스 포인터가 '소셜 달빛 원고' 파일로 향한다. 문서를 클릭하자 보이는 제목 '달빛'

동우는 제목을 바라보다가 다시 문서 파일을 닫는다.

그때, 위층에서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동우는 연주소리를 듣고 무엇인가 떠오른듯 인상을 찌푸린다.

S#2.길거리 (실외/낮/동우의 환상)

(배경음악: 드뷔시의 '달빛' 앞부분 짧게)

햇살이 가득한 대낮, 행복하게 미소 띄우며 거리를 걷는 동우.

반대편 거리에서 동우를 기다리는 미영이 보인다
미영이 동우를 보고 손짓하기 위해 손을 힘들게 올려 보려 하지만 이내 다시 손이 내려
가고 만다.

동우는 갑작스레 인상을 쓰며 멈칫 한후, 마지못해 천천히 미영에게 다가간다.
동우가 미영을 향해 다가 갈때, 전화 한통이 걸려 온다.

전화 목소리: 동우야, 빨리 병원으로 와! 미영이가...

동우 시점샷. 햇살이 동우의 눈을 강하게 찌를때, 전화소리도 끊어진다.
초록불로 신호가 바뀌고 미영이 있던 곳에 도착한 동우.

그곳에 미영은 없다.
미영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햇살만이 텅빈 공간을 비추고 있다.
누군가 구토를 하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S#3.동우의 원룸 (실내/밤)

(드뷔시의 '달빛' 화장실안에서 들리는 듯한 울리는 소리)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있는 동우의 모습이 보인다.
토를 다 한후,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우
화장실 안에서도 드뷔시의 달빛이 울리듯 연주되고 있다.

Cut to

화장실 문을 여는 동작과 다음 씬의 옥상문을 여는 동작이 매치 컷 된다.

S#4.동우의 원룸 옥상 (실외/밤)

옥상문을 열고 달을 보기 위해 난간으로 가는 동우.
난간에 기대서, 달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달을 바라보던 중,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옆에 누군가 선 듯한 소리가 들린다.

옆을 바라보니 한 여자(지연)가 서있다.

옆에서서 동우를 슬쩍 쳐다보고는 조심스레 말을 거는 지연

지연: 안녕하세요

동우: (말없이 지연쪽을 쳐다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그리고 다시 달을 바라본다)

지연: (달을 쳐다보는 동우를 한번 보고) .. 달이 예쁘네요

동우: (대답 하기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만 한다)

말없는 동우를 가만히 쳐다보는 지연.

플래시컷 - 지연의 남동생 승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묘한 표정으로 동우를 쳐다보던 지연은 고개를 돌려 동우와 같이 달을 쳐다본다.

달빛을 받으며 서있는 두사람의 뒷모습.

S#5.지연의 원룸 계단 (실외/밤)

옥상에서 함께 내려가는 동우와 지연.

지연이 먼저 자신의 집 문으로 들어가려 한다. 동우는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면서 지연에게 시선을 준다.

지연도 동우에게 시선을 마주한다. 둘은 시선을 교환하고 고개를 숙여 가볍게 인사하고 서로의 집으로 돌아간다.

지연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며 현관문을 닫는다.

(띠리릭, 띠리릭 현관문 닫히는 소리)

S#6.지연의 원룸 안 (실내/밤)

문을 닫고 집에 들어선 지연은 구석에 보이는 가정용 피아노 앞에 앉는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Fade out

S#7.지연의 원룸 옥상 (실외/낮/환상)

(배경음악: 드뷔시의 '꿈')

-Fade in

지연이 남동생 승호와 옥상에서 태양을 보고 서있다.
(태양은 자연광)

지연: (멍들어 있는 승호의 눈을 보고) 또 맞고 온거야?

승호: ...

지연: 강해져야 돼 승호야, 스스로 이겨낼 수 밖에 없어..

승호: 알아.. 아는데 그냥 다 힘들어 누나

(핸드폰 진동소리)

지연: (전화가 왔는지 핸드폰을 꺼낸 후 승호에게 잠시 눈짓 하며) 잠시만,
네... 맞아요, 27일날 백건우 연주회 스페셜 게스트요?
(방긋 웃으며) 물론 가능하죠! 네, 드뷔시의 '달빛'이요?

승호: (바빠 보이는 지연을 힐끗 쳐다보고 조용히 문쪽으로 향한다)

지연: (전화가 끝났는지 마무리 하고 승호쪽을 쳐다본다)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디가!

승호가 옥상 문을 열자 하얀색 빛이 가득 뿜어져 나온다.
지연이 승호를 뒤 늦게 쫓아가 보지만 승호는 그런 지연을 보며 작게 미소 짓더니 점점
화면에서 사라져 간다.

S#8.지연의 원룸 안 (실내/밤)

지연이 서서히 눈을 뜬다.
딩그러니 남겨진 가정용 피아노가 보인다.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로 가서 눕는 지연.
눈을 뜨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다.

-Insert

콩쿠르 대회에서 받은 메달들이 아무데나 내 팽개쳐져 있다.

침대 옆 선반에 승호와 찍은 액자사진이 놓여 있다.

S#9.미영의 집 거실 (아파트 실내/낮/플래시백)

초점이 잘맞지 않는다.
실루엣만 보이는 미영이 가정용 피아노 앞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연주를 하고 있는 것
이 보인다.
서서히 초점이 맞기 시작한다.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하고 있는 미영이 제대로 보인다.
과거의 동우는 미영에게서 떨어져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동우: (핸드폰을 귀에 대고) 네, 맞아요 소설 제목은 '달빛' 입니다!

미영: (연주 연습을 하다가 동우를 슬쩍 보며) ...

동우: 완성되는 대로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났는지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미영의 옆에 앉는다.
그런 동우에게 미영이 말을 건넨다.

미영: 많이 바빠 보이네.

동우: (다시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채) 늘 그렇지 뭐

미영: 기분 전환도 할겸 지금 잠깐 피아노 배워 보는 건 어때?

동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잠시만, 아 네.. 네!

핸드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하는 동우
미영이 방으로 들어가는 동우를 잠시 바라보다가 건반에 손을 두고 연습을 계속 한다.

그러다, 미영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진다.
방안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미영에게만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켜진다.
달빛의 연주소리가 끊기고 미영의 손이 건반에서 축 내려간다.
미영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고 손을 다시 위로 올리려 해보지만 힘 없이 내려갈 뿐
이다.

-Insert: 마비된 미영의 손 클로즈업

미영은 소리내서 동우를 부르려고 하지만 몸이 떨리기만 할뿐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미영의 심리로 동우를 보는 주관적 시점샷. 줌 인 달리 아웃)

과거의 동우는 미영의 손이 마비 되는 걸 눈치 채지 못하고 출판관련 통화에 열중하고
있다.

S#10. 건물 옥상 (실외/밤)

핸드폰을 들고 달을 쳐다보고 있는 동우의 뒷모습이 보인다.

출판사 직원의 목소리: 동우씨, 소설은 언제 좀 완성될까요?

동우: ... 잘 모르겠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들어 오다가 통화하는 동우를 발견한 후, 멍뚱하고 서서 통화 내용을 듣게 되는 지연

출판사 직원: 여자친구 분 이야기는 들었어요, 유감입니다.. 그래도 동우 씨는 빛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동우: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출판사 직원: (한숨을 푹 내 쉬고) 지금은 그냥 동우씨가 많이 힘드셔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달, 딱 한달만 시간 더 드릴테니까 생각 정리 잘 하시고 소설 완성되면 보내주세요

동우: 죄송합니다. 더 이상 소설은 못쓸 거 같습니다

출판사 직원: 동우씨! 동우씨 아직 젊어요, 재능도 있고, 한달 동안 천천히 다시 써봐요. 알았죠?

동우: ...

출판사 직원: 그럼 그런 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한숨을 내 쉬는 동우.
달을 멍하니 쳐다본다.

Insert

닫혀 있는 옥상문.

S#11.지연의 원룸 안 (실내/밤/뒷부분 환상)

가정용 피아노에 앉아 있는 현재의 지연.
어두운 방안에 덩그러니 남겨진 낡은 가정용 피아노 앞에 앉아 드뷔시의 ‘달빛’을 홀로 연주하기 시작한다.

연주가 시작되면 방은 다 어두운 가운데 푸른색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지연 에게만 비춰지고, 죽은 승호가 지연의 옆에와서 앉는다.

지연: (옆에 앉은 승호를 보며) 그렇게 좋아?

승호: (고개를 끄덕이며) 응.. 마음이 되게 편해져

지연: (빙긋 웃더니 다시 연주를 시작하려 한다)

승호: 누나... 근데 저번에 말한건...

지연: (연주를 잠시 멈추고 승호의 말을 끊으며) 그건 그때도 안된다고 했잖아. 잠깐 배운다고 바로 연주 할 수 있는게 아니야. 그리고 누나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 피아노는 나중에 배워도 되잖아 안그래..?

승호: 난 지금 꼭 배우고 싶은데...

지연: 나중에, 나중에 하자 승호 야

승호: ...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뒤 다시 연주를 시작하는 지연을 슬픈 눈으로 바라본다)

-Insert: 건반을 잘못 누르는 지연의 손

지연이 건반을 잘못 눌러서 드뷔시의 '달빛' 연주소리가 끊어진다.
화면을 채우던 푸른색 조명이 사라지고, 다시 조명이 없는 어두운 방안으로 돌아온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지만 승호는 사라지고 없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문 쪽을 바라보는 지연

-Cut to: 문쪽으로 향하는 지연

-Cut to: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지연

S#12.지연 원룸 문밖 복도 (실외/밤)

밖에 나가보니 동우가 자리에 서 있다.

지연: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안녕..

동우: (지연의 말을 끊고 짜증스럽게) 저기요, 제가 웬만해선 말 안하려고 했는데 밤마다 연주좀 그만 하시면 안되요?

지연: ...

동우: 사람들 다 자는 시간 이잖아요

지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저한테 꼭 필요한 일이라 그런대.. 한번만 참아주시면 안될까요..?

동우: 하아... (떨리는 목소리로) 연주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지연: 많이 힘드세요..?

동우: (언성을 높이며) 네! 몇번을 말해요

지연: ...

동우: 소리.. 지른건 죄송해요, (눈시울을 붉히며)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지연: (동우를 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피아노.. 한번 쳐보실래요?

동우: ...

지연: 직접 연주를 해 보면 다를수도 있어요

-Cut to:

<짧은 플래시 컷> ‘피아노 한번 배워볼래?’ 라고 말하던 미영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말 없이 지연을 쳐다보고 있는 동우

같은 표정으로 피아노 앞에 지연과 같이 앉아있는 동우

S#13.지연의 원룸 안 (실내/밤)

(썸 의 후반부 부터 드뷔시의 ‘달빛’이 들리 기 시작)

드뷔시의 ‘달빛’ 악보가 펼쳐져 있고, 악보의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며 동우에게 눈짓하는 지연.

동우가 지연의 지시에 따라 조금씩 연주를 따라하기 위해 조심스레 건반에 손을 갖다 대려 하지만 손을 부들 부들 떨며 차마 연주를 시작하지 못한다.

동우: 역시.. 안되겠어요

지연: (동우를 쳐다보며)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한마디 한마디 다시 시범을 보여주는 지연.동우가 계속 손을 떨며 건반에 손을 대지 못하자 동우의 뒤로가 그의 뒤에서 손을 잡고 건반 하나, 하나를 조심스레 누르며 연주를 같이 하기 시작한다.

(연주를 같이 하기 시작하면 드뷔시의 ‘달빛’이 울려 퍼진다)

END

엔딩곡- 드뷔시의 '달빛'

